

3주차

태평양전쟁과 총동원체제 하의 여성들 (1930-40년대)

김 지 민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일본 군국주의의 움직임: 태평양전쟁으로 가는 길

- 일본의 근대화 과정
- 군국주의적 움직임 -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
- 대동아공영권

02. 총동원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병참기지’ 조선
- 내선일체
- 민족말살정책

03. 독립운동과 여성

- ‘신여성’의 세 갈래의 길
- 근우회
-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

04. 제국의 여성 이미지

- 제국이 만든 이미지
- 총후부인
- 신사임당의 회귀

05. 전쟁에 동원된 여성들

- 국내 인력동원
- 국외동원 - 여자근로정신대
- 대륙신부

4차시

제국의 여성 이미지

학습목차

학습목표

- 총동원체제기 일제가 내세운 여성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총동원체제기 언론에 비친 여성상에 대해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제국이 만든 이미지
- 총후부인
- 신사임당의 회귀

제국이 만든 이미지

이번 차시에는...

- 일제 총동원체제의 여성상

총동원체제기 조선

- 모든 인력과 자원이 전쟁 체제를 위해 동원
- 모든 언론, 문화, 사회 체제가 검열 및 통제
- 총독부는 황국 신민의식을 강제하기 위해 정보 통제 정책을 시행

국민총동원을 위한 언론 검열과 통제

- 1937년 총독부, 일반검열기준 - 언론의 검열 및 폐간
- 1938년, 조선춘추회 결성 - 언론통제
-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 ‘시국에 관한 출판물 단속에 관한 건’
 - 모든 언론은 국민총동원 위한 선전에 참가할 의무

‘국민총동원’을 위한 언론 검열과 통제

- 조선어 민간 신문의 폐간

1936년 <조선중앙일보>, 1940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 유일한 국한문 신문 <매일신보> (총독부 관제 기관지)

- 총독부의 철저한 통제 하에 놓인 언론과 집회

1940년대 인쇄출판물 속 여성 이미지

- 일제가 지향하는 여성상 반영
- 경성의 여성 이미지: 부인이자 어머니, 직업여성, 여학생으로 분류

1940년대 인쇄출판물의 여성 이미지

- 어머니 - ‘군국의 어머니’, ‘총후부인’
- 직업여성 - 전시체제 하에서 ‘명랑’과 ‘친절’
- 여학생 - 장병 위문문 쓰기, 헌금, 생산공장에 지원하여
노동하는 여성으로 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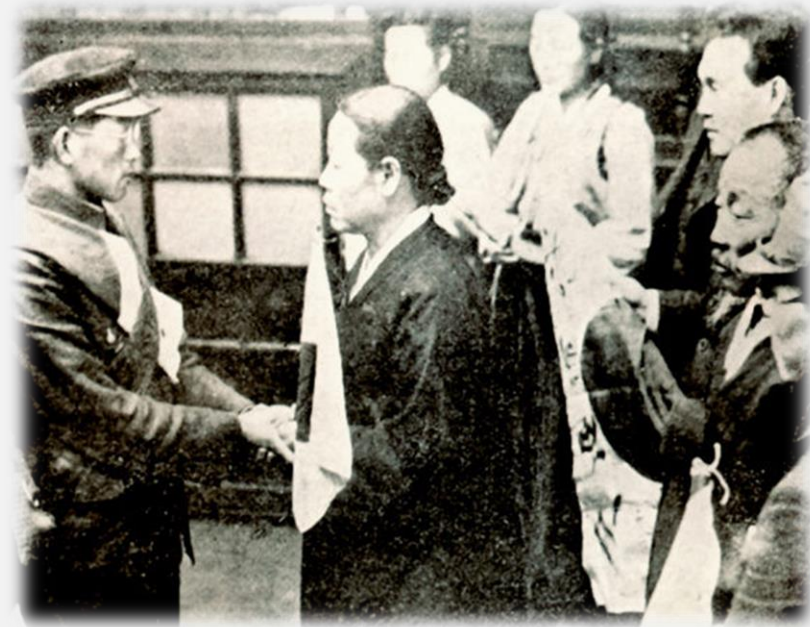
총후부인

국민정신총동원체제에서 가정

- 국가의 기초이며 총동원 단위로서 가정
- 천황제 파시즘의 가족국가주의
- 가정을 배경으로 ‘총후부인’ 개념 등장

총후부인

- ‘총후=총의 후방’
- 군인들이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여자들은
국내 후방에서 지원해야
- 여성은 전선에서 싸우는 각오로
후방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할 것을 강조



학병으로 전쟁에 나가는 아들을 배웅하는 ‘군국의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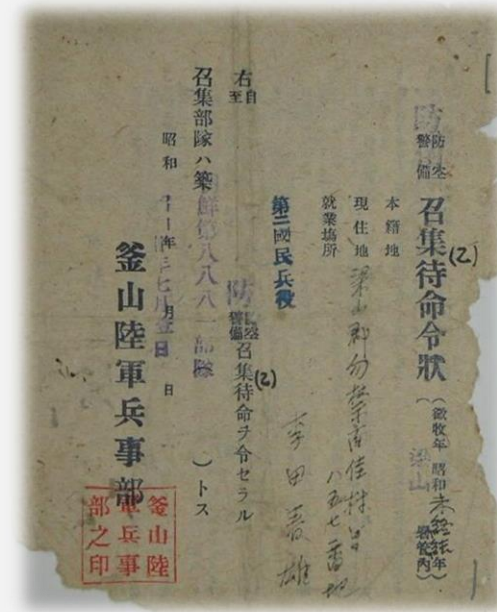
총후는 “광이와 마치를 잡고 직역(職域)에서 혹은 틈을 타, 농촌이나 공장에 나가서, 근로를 하는 것을 마치 제국군인(帝國軍人)이 총을 잡고 전선에 서는 기분과 각오로서 나아갈 것”

(“일 아니하는 자는 국민이 아니다,” <신시대> 1권 10호, 1941. 10, 18쪽.)

징병

- 처음에는 조선인의 징병에 신중
- 1938년 2월부터 조선인 남성을 선별하여 차출
- 태평양전쟁 발발(1941) 이후 본격화
- 황민(전선에 나가는 청년, 총후부인, 소국민)

vs. 비국민



징병통지서

총후부인

- 전시체제기 정치 단위로서 가정
- 가정의 안전한 국민의 표상, ‘총후부인’
- 근대화의 상징 ‘신여성’은 개인주의적, 퇴폐적, 비생산적 여성으로 재현

총후부인

- 일본에서 여성은 아들을 낳아 국가에 기꺼이 바치는 **성스러운 어머니** 이미지
- 전시의 현모양처 = ‘군국의 어머니’로서 국가에 헌신

총후부인의 맥락

1 새로운 체제와 생활 개선의 차원

- 전쟁 중 후방의 물자 및 노동력 동원 단위로서 가정이 중시
- 가정관리는 물자 동원과 직결

총후부인의 맥락

2 후방의 안전

3 스파이 담론

- 개인주의적이고 위험한 존재로서 신여성 vs. 총동원 이념을 대변하는 총후부인

총후부인의 맥락

4 국민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여성

- 인구증가 정책 강화
- 전쟁 중 인명 손실 충전하기 위해서 여성(어머니)은 병사의 공급원
- 조선 여성들에게 ‘군국의 어머니’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선전 활동

“소년항공병을 전장에 보내고 비행기의 연료 대용품 생산을 위해
가정이 광맥의 역할”

《신여성》 1944년 7월호

“모성 보호와 인구 정책이 국가 전력증강을 위한 방책”

《신시대》 1945년 1월호

총후여성

- 대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면서 후방에서 남성을 보충하는 대용품적 존재로 기능
- 일제의 이런 정책을 적극 수용한 지도층 여성들
 - “인간생활은 전쟁이올시다. 가정도 전쟁입니다. 인간 모도가 다 병정입니다”
(「반도지도층부인의 결전보국의 大獅子吼」, 《대동아》 1942. 3, 107쪽)

신사임당의 회귀

신사임당의 재등장

- 여성이 자식을 국가에 바친다는 개념이 낯설었던 조선
- 황민화 작업에 참여한 지식인들, **군국의 어머니상**을 만들기 위해 조선역사 재해석
- 역사적 인물로서 신사임당을 소환

1940년대의 신사임당의 이미지

- 징병독려를 위한 선전 공연
- 야담가 신정언, 강릉에서 징병제 선전 공연
‘울곡=황국신민’, ‘신사임당=군국의 어머니’로 묘사

연극 〈신사임당〉

- 남편의 부재로 인한 역경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는 신사임당
- 자녀 교육의 궁극적 가치로 ‘충(忠)’을 강조
- 연극을 통한 황민화 이데올로기 설파
- 징병제가 요구하는 ‘군국의 어머니’의 이미지

시대에 따라 호명된 신사임당 이미지

- 각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여성상의 변화
- 여러 시대에 등장하고 거론된 신사임당

마무리

- 제국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내세운 여성 이미지

SOURCES

[출처01]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 CER0000052)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97271&dsid=000000000023&gubun=search>

[출처02] e뮤지엄(<https://www.emuseum.go.kr/>), 부산근대역사관 소장 (소장품번호: 기증 206)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